##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 '수출만이 살 길'은 아니다

중장년층이라면 수출 장려 표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거다. 학창 시절, 우린 그렇게 수출지상주의자로 길들여졌다. '수출 보국', '수출은 국력의 총화'란 말은 너무나 당연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한국, 한국인에게 수출은 '신앙'이자 '신화'였다. 수출만이 살 길인 양 한국은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런 태도는 21세기에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수출 강박증은 '경제 영토 확장'이란 명분을 탄생시키며 강대국들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진다. 그 핵심에 수출이 있었다. 수입이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는 수출지상주의에 의해 자연스레 덮였다.

한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5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0.9%나 감소했다. 한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휘청대던 200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다행히 6월엔 수출 감소 폭이 다시 한 자릿수로 줄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들보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013년 4월, 미국의 한 경영 컨설팅 회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다. 흔히 매킨지 보고서라 불리는 이 문서의 제목은 '한국 스타일을 넘어 신성장 공식의 형성'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참담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매킨지는 수출에 편향된 한국의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고 경고했다. 하루라도 빨리 내수를 축으로 한 성장모델로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거라 전망했다. 사실 한국이 내수를 키워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거란 충고는 수많은 연구기관, 경제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바다. 하나, 한국은 그 고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내수는 고사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도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그 원인으로 꼽지만 이들은 징후이지 원인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지갑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7%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다. 훌륭하다. 한데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 힘들다"고 한다. 왜일까. 극단적 수출 지향의 경제는 극소수 수출기업들의 배만 불렸을 뿐이다.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 관계 회사, 지역사회 등에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지 않다. 근로자들은 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머니는 좀처럼 채워지고 있지 않다.

노동생산성 증가 폭을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즉 시간당 생산량은 연평균 2.71% 상승했다. 하나, 같은 기간 시간당 실질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0.56%였다.

노동생산성이 실질 임금 증가율을 다섯 배나 앞지르고 있다. 재주는 노동자가 부리고 돈은 다른 쪽이 챙기고 있다. 벌어들인 과실 대부분이 극소수 대기업의 금고에 쌓이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의 경영자나 오너들 주머니로 흘러갔다. 소수의 지갑은 두둑해진 반면 다수의 주머니는 그대로다. 이러니 내수가 살아날 리가 있겠는가.

이젠 '수출만이 살 길'이란 명제를 돌아봐야 할 때다. 수출 편향의 경제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다른 나라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수출은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게다가 타국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도 없다.

좀 더 주체적인 경제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수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하는 보통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한다. 수출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과실의 공정한 배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말라가는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책이다.

〈경제평론가〉

## 社 說

# U대회 개막…이제 즐기자 그리고 보여주자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오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날아온 젊은이들로 빛고을 광주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9개국,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유니버시아드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대회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즐기면 된다.

하지만 경기를 즐기는 한편 우리는 손님 접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주최국 텃세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과 품격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후덕한 인심과 다정다감한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깊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자. 수만 명의 선수단과 취재단에게 남도의 문화와 매력을 알게 해 주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선수들의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전은 대회 성공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형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안전사고, 식중독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며칠 잠잠하다가 최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또다시 나온 만큼 방역 등 예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U대회는 광주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국제경기대회다. 광주가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각인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인 셈이다. 따라서 시민들도 모두 '민간외교관'이라는 자세로 품격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 준수, 청결 분위기 조성, 친절한 손님맞이 등을 실천함으로써 광주 U대회가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학생들의 축제' 지역 대학이 외면해서야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오늘 개막되는데 정작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분위기는 썰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를 찾은 세계의 대학생들과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성공 개최에도 힘을 보태야 할 지역 대학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니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보 취재에 의하면 전남대와 조선대는 대회가 열리는 2주 동안 U대회와 관련된 단 한 건의 문화·교류 행사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작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야제나 성화 봉송에만 참여할 뿐 대회기간 열기를 고조시킬 자발적인 행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대구U대회가 열릴 당시 경북대가 세계대학문화엑스포를 주최하고 참가국 선수들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이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 준비를 안 했다"고 했다는데 대구대회 역시 8월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수영과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남부대와 호남대가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지만 겨우 아쉬움을 달래는 수준이다. 동신대와 동강대도 경기가 열리는 날만 댄스·연주 공연으로 선수단을 격려한다는데 여러모로 미흡하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지만 누구보다도 대학생들이 벌이는 스포츠 제전이다. 세계의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이벤트를 창안해 자신들의 대학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조직위나 각국 선수단과 연계해 선수들이나 관광객을 학교로 부르고 경기장도 직접 찾아갈 수는 없는 걸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안마당에서 잔치판이 벌어지는데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 종교칼럼

# 한마음으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김 법 성
광주원음방송 사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2일 전남대 종합운동장에서의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광주에서 149개국 1만3000여 명이 참가하여 12일간 자웅을 겨루는 열정적인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대학생들의 축제에 참여한 선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모두가 뜻하는 행운을 가져가기를 한마음으로 바랍니다.

광주시민과 전국민 그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이 대회를 응원하고 잘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겠지만, 우리 고장에서 치러지는 행사이니만큼 대회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의 간절함을 모아 지난 6월4일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채화된 성화로 전국을 누비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광주는 대회기간 동안 경기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로 예향으로서의 멋과 맛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큰 대회가 열렸을 때 다른 나라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모임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선수도 적고 응원단도 그렇게 많이 꾸려 오지 못한 나라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을 더 열심히 응원해주는 분들을 보면서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도 우리의 메달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약자를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전해 지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한마음은 작은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입니다. 한마음은 큰마음이고 근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음에는 너와 내가 구분되고, 네 것과 내 것이 분명하지만 큰 마음에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너이며 나인 것이 한마음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비라국의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뒤로 한 채 출가를 단행하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통해 참 나를 찾아 한마음을 깨달은 분이십니다. 범부 중생을 한 가족으로 알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님도 파란고해(波瀾苦海)의 일체 생령을 구원하고자 염원하고 20여 년의 구도 끝에 큰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의 세계, 일원의 진리를 밝혀주시며 모든 인류와 생령들이 하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고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음을 깨달은 성품 자리에서는 모든 성자와 성현들을 하나로 만날 수 있고, 범부와 중생도 다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 하였습니다.

성품에는 모든 부처님과 법을 이은 조사 그리고 중생까지도 한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 종교인도 서로 이해하며 도반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여야 함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만날 때 이 지구상의 갈등과 다툼은 사라질 것이며 성자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극락과 천당은 이 땅위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곳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도 너와 내가 아닌 오직 '우리'라는 지구촌을 생각하며 12일간의 대장정이 기쁨의 빛으로 마무리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無 等 鼓

### 리틀 트램프

꼭 끼는 웃옷에 헐렁한 바지, 콧수염과 큼지막한 신발, 지팡이와 모자,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가 흐르는 가운데 무대 위에 등장한 그의 움직임은 어딘지 슬프다. 발레리나·발레리노들의 우아한 움직임 속에서 그는 더욱 외로워 보인다.

지난해 영화관에서 봤던 라이프치히 발레단의 '모던발레 채플린'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채플린 영화 속 캐릭터인 '리틀 트램프'(Little Tramp)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작품이다.

리틀 트램프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던 찰리 채플린(1889~1977)과 동의어다. 리틀 트램프가 처음 등장한 건 1904년 작 '베니스에서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에서다. 채플린은 장인에게서 빌린 작은 모자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친구들에게 빌린 꽉 끼는 양복에 커다란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동료 배우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콧수염을 붙이고 지팡이를 들었다.

아마도 무성영화라는 장르를 영화 팬들에게 뚜렷이 각인시킨 작품은 소외되고 기계화된 인간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채플린의 '모던타임즈'(1936)일 것이다. 하루 종일 나사 조이는 일을 하다 무엇이든 조이는 강박증을 갖게 된 찰리와 고아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모던타임즈'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많다. 그 중에서도 기계 속으로 들어가 톱니바퀴 사이를 돌며 나사를 조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명장면이다.

대학생 시절, 지금은 사라진 신동아 극장에서 '모던타임즈'를 볼 때는 그 장면이 마냥 우스꽝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기계 속 부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한번쯤 느끼는 사회인이 된 지금은,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채플린 특별전이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떠돌이 찰리와 눈먼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시티 라이트'(4일 오후 3시20분, 8일 오후 7시30분)를 비롯해서 '모던타임즈'(11일·15일), 평범한 이발사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명 높은 독재자를 다룬 코믹 정치 풍자 '위대한 독재자'(18일·22일) 등 3편이 상영된다. 모두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 기 고

# 운동회를 운동장에서 못하는 슬픈 광주

이 은 방
광주시의회 의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 조사했다. 국가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의한 인조잔디 유해성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학교 5곳이 검사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금속인 납 성분이 적게는 1.33배에서 많게는 50.47배까지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5개교의 운동장은 올해 1월부터 폐쇄한 상태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보면 한탄스러울 정도다. 교육청은 1월8일 해당학교에 이용금지 알림판 설치와 이용금지가 인쇄된 봉쇄테이프, 현수막 등을 운동장에 설치해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예산을 1월15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1월26일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 학교의 운동장은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14일 지원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나 예산 지원이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납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성이 있어 국가에서 기준치를 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납 성분이 학교 인조잔디에 과다검출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운동장을 폐쇄한 채 예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월 개학하면 각종 체육활동과 4·5월 운동회가 열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아직까지 운동장 공사를 못해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직속으로 학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수학여행은 물론 학교 유해환경과 폭력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유해한 환경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전'보다 '돈'을 추구하는 사회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일으켰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매년 상당액수를 '성립 전 예산'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광주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지장 초래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부득이 하게 사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성립 전 예산이다.

학교운동장이 폐쇄되고 아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가 6월 추경에서야 편성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응급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은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처럼 사전에 시의회에 예비비를 통한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감안하면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문제가 된 5개 학교 중 2곳은 인조잔디에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을 하고, 3개교는 친환경 인조잔디로 바꿀 계획이다. 운동장 조성에 관한 문제는 해당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운동장마저 인조잔디로 조성된다면 아이들이 어디서 흙을 밟아 볼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